

맞이하기

- *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가장 힘들었던 일 한 가지와 가장 감사했던 일 한 가지를 나누어봅시다.
- * 지난 주 함께 기도한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나누어 봅시다.

말씀요약

- * 설교본문과 설교요약을 읽습니다. (bit.ly/31moim)

은혜 나누기

- * 말씀을 들으며 가장 와 닿았던 내용이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말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감사하게 된 것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오늘 나눈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도전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제사를 싫어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함께 기도하기

- * 이번 한 주 어떤 삶을 기대하십니까? 구체적인 기도제목 한 가지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 * 공동체를 위한 기도제목들을 공유하며 기도합시다.

들어가며

이스라엘 백성은 소돔과 고모라로 불립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시대에 그 악으로 인해 불의 심판을 받은 도성이었습니다.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은 그에 못지않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 하나님의 법도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1. 성전 마당을 짓밟는 제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제사를 문제 삼으십니다. 그런데 그 초점은 그들이 드리는 제사나 제물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정성스런 제사와 더 많은 제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수많은 제사와 제물이 하나님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견디기 힘든 짐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지내러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성전 마당을 짓밟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 이 사람들로 인하여 훼파되고 더럽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한 수많은 제사가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제사와 제물은 헛된 것이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 가증하기까지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제사 행위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제사와 모임과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제사 때마다 오목하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내밀어 복을 간구하는 그 손에는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 피는 제물의 피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가 억울하게 흘린 피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역겨워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손에 피를 묻힌 채 드리는 수많은 제사와 제물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었습니다.

2.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더 많은 제사나 제물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따르며, 사회적 약자들을 학대하여 피 흘리는 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불의를 멈추지 않으면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 의식과 제사들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향한 돌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이 돌을 결코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종교적 의식들에는 온 힘을 쏟으면서 복 받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이웃들에게는 악을 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기는커녕 착취하고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 헌신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라도 악을 행하기를 멈추고 돌이킨다면, 피로 묻든 모든 더러운 손을 깨끗하게 씻겨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오를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주홍보다 더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정결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는 그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기 위해 이웃의 피를 흘리는 삶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복과 생명의 길, 곧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을 향해, 여기 길이 있으니 이제라도 돌아오라고, 내가 새롭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